



| | | | |
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보도 일시 | 2021. 1. 12.(수) 09:00 | 배포 일시 | 2021. 1. 12.(수) 08:00 |
| 담당 부서 | 개발금융국 개발금융총괄과 | 책임자 | 과장 지광철 (044-215-8710) |
| | | 담당자 | 사무관 이명진 (mjlee530@korea.kr) |

2022년 세계은행(World Bank) 세계경제전망 발표

- 세계은행(WB)은 1.11.(화) 9:30(美 워싱턴 D.C 기준, 한국시각 1.11.(화) 23:30)에 「세계경제전망(Global Economic Prospects)*」을 발표하였음

* WB는 매년 2회(1월, 6월) 「세계경제전망」을 발간하며, 우리나라의 성장률 전망치는 별도로 발표하지 않음

- 주요 내용 및 전망치는 첨부*를 참고

* 2022.1월 세계은행(World Bank) 세계경제 전망 주요내용 및 전망치

※ 참고자료는 보도편의를 위해 세계은행의 보고서를 요약·정리한 자료이므로 상세 내용은 WB Global Economic Prospects (www.worldbank.org/gep)를 참고

참고 1

2022년 세계은행(World Bank) 세계경제전망 주요내용

① **[세계경제 전망]** 금년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은 **4.1%*** (선진국 3.8%, 신흥·개도국 4.6%)로 '21년 5.5% 대비 **△1.4%p 하락***

* ('21년) 5.5% → (**'22년**) **4.1%** → ('23년) 3.2%

※ (IMF, '21.10월) '22년 4.9% 전망, (OECD, '21.12월) '22년 4.5% 전망

○ (원인) 전년 대비 성장률 전망 하락의 주된 이유로 지속적인 코로나19 재발, 재정 지원 감소, 공급망 병목 현상* 등을 지적

* 공장·항구 폐쇄, 물류 장애(logistical obstacle), 반도체 및 해상 컨테이너 부족 등

- '23년 세계경제 성장률은 보복 수요(pent-up demand) 급감, 정부 정책 지원 약화 등으로 인해 3.2%로 더 낮아질 전망

○ (리스크) 변종 코로나19 확산, 기대 인플레이션 불안정성, 대규모 부채로 인한 재정부담 등 경제 하방 리스크 존재

○ (정책 제언) 신속·평등한 백신 보급, 보건·경제정책 교정(calibration), 최빈국 내 부채 관리 등 글로벌 공조 강화 필요

- 특히, 신흥·개도국은 장기적으로 빈부격차·성불평등 완화, 보건·기후 관련 위기 대응 강화 등을 위한 정책 개혁 필요

② **[지역별 전망]** 신흥·개도국은 팬데믹에 따른 피해를 극복하기에 경제 성장률이 충분히 높지 않은 상황으로 지역별 편차도 큼

| (단위: %) | 세계 | 미국 | 유로존 | 동아태 | 유럽 중앙아 | 중남미 | 중동 북아프 | 남아사 | 사하라 이남 |
|----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-----------|-----|-----------|-----|-----------|
| '21년 | 5.5 | 5.6 | 5.2 | 7.1 | 5.8 | 6.7 | 3.1 | 7.0 | 3.5 |
| '22년 | 4.1 | 3.7 | 4.2 | 5.1 | 3.0 | 2.6 | 4.4 | 7.6 | 3.6 |

- (선진국) 재정 지원 감소 효과를 보복 수요로 인한 경기부양 효과가 일부 상쇄 → 전년대비 소폭 하락('21년 5.0→'22년 3.8)
 - (미국) 재정·통화정책의 지원 약화와 공급망 불안정성, 인플레이션 심화 등으로 인해 전년 대비(5.6%) 하락한 3.7%*
 - * 다만, 인프라 법안(1.2조 달러) 최종 통과('21.11월 발효)에 따른 경기부양 효과는 단기적
 - (유로존) 서비스 소비·투자의 꾸준한 회복 등 4.2% 성장* 전망
 - * 현재 수준의 회복세 유지 시, 금년 말 팬데믹 이전 생산량(output) 회복 예상
- (신흥·개도국) 선진국과 달리 신흥·개도국은 여전히 팬데믹에 따른 잠재성장률 저하를 극복하지 못하는 중('21년 6.3→'22년 4.6)
 - (동아태) 중국의 경제 회복세 약화('21년 8.0→'22년 5.3) 및 글로벌 수요의 지속적 감소와 해외여행 제한 등으로 5.1%* 성장 전망
 - * 중국 제외 시 5.0%('21년 2.5%) → 백신 보급에 따른 국내 수요 증가 영향
 - (유럽·중앙아) 국내 수요 감소와 통화 긴축 정책 등으로 3.0%
 - (중남미) 재정·통화 긴축 정책과 고용 악화 지속, 주요국의 경제성장 둔화에 따른 외부 수요 감소 등으로 인해 2.6%
 - (중동·북아프리카) 유가 상승 및 원유 수출 증가 등 4.4% 전망, 재정 지원 약화와 코로나19로 인한 관광산업 부진 등 우려 有
 - (남아시아) 백신 보급과 팬데믹 관련 혼란(disruption) 수습 등으로 7.6%
 - (사하라 이남) 상품 물가 상승과 관광산업 점진적 회복 등으로 3.6%

참고 2

2022년 세계은행(World Bank) 세계경제 전망치

(단위 : %, %p)

| | 2019 | 2020 | 2021 ^e | 2022 ^f | 2023 ^f | '21.6월 전망 대비 조정폭 | |
|--|------|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
| | | | | | | 2022 ^f | 2023 ^f |

▪경제성장률 (시장환율 기준)

| | | | | | | | |
|----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|-----|-------|------|-------|
| (세 계) | 2.6 | △3.4 | 5.5 | 4.1 | 3.2 | △0.2 | 0.1 |
| ○ 선진국 | 1.7 | △4.6 | 5.0 | 3.8 | 2.3 | △0.2 | 0.1 |
| - 미국 | 2.3 | △3.4 | 5.6 | 3.7 | 2.6 | △0.5 | 0.3 |
| - 유로지역 | 1.6 | △6.4 | 5.2 | 4.2 | 2.1 | △0.2 | △0.3 |
| - 일본 | △0.2 | △4.5 | 1.7 | 2.9 | 1.2 | 0.3 | 0.2 |
| ○ 신흥시장·개도국 | 3.8 | △1.7 | 6.3 | 4.6 | 4.4 | △0.1 | 0.0 |
| (동아시아·태평양) | 5.8 | 1.2 | 7.1 | 5.1 | 5.2 | △0.2 | 0.0 |
| - 중국 | 6.0 | 2.2 | 8.0 | 5.1 | 5.3 | △0.3 | 0.0 |
| (유럽·중앙아시아) | 2.7 | △2.0 | 5.8 | 3.0 | 2.9 | △0.9 | △0.6 |
| - 러시아 | 2.0 | △3.0 | 4.3 | 2.4 | 1.8 | △0.8 | △0.5 |
| (중남미) | 0.8 | △6.4 | 6.7 | 2.6 | 2.7 | △0.3 | 0.2 |
| - 브라질 | 1.2 | △3.9 | 4.9 | 1.4 | 2.7 | △1.1 | 0.4 |
| (중동·북아프리카) | 0.9 | △4.0 | 3.1 | 4.4 | 3.4 | 0.8 | 0.1 |
| - 사우디 | 0.3 | △4.1 | 2.4 | 4.9 | 2.3 | 1.6 | △0.9 |
| (남아시아) | 4.4 | △5.2 | 7.0 | 7.6 | 6.0 | 0.8 | 0.8 |
| - 인도 | 4.0 | △7.3 | 8.3 | 8.7 | 6.8 | 1.2 | 0.3 |
| (사하라이남) | 2.5 | △2.2 | 3.5 | 3.6 | 3.8 | 0.3 | 0.0 |
| - 남아공 | 0.1 | △6.4 | 4.6 | 2.1 | 1.5 | 0.0 | 0.0 |
| ▪국제무역량 (전년 대비) | 1.1 | △8.2 | 9.5 | 5.8 | 4.7 | △0.5 | 0.3 |
| ▪국제유가 (전년 대비) | △10.2 | △32.8 | 67.2 | 7.2 | △12.2 | 7.2 | △13.1 |